

文章의 構造的 形態에 의한 文段 分析과 그 實際

김 광 응
(인문대 국어국문학과)

[I]

文章은 文段의 統一性에 依해서 짜여진 설계도이다. 어떤 文章 (speech)이든 中心段落을 中心으로 어떤 구조형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文章을 분석할 때 첫 글자에서 끝까지 읽고 文章의 내용을 단번에 파악하기는 힘들다.

文章은 단락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文段의 내용을 분석 추리하면서 단락과 단락의 關係와 여러 단락 중 中心段落과 補助段落의 연관성을 살핀 뒤 그 文章의 內容을 이해할 때 組織的이고 論理的인 分析이 가능할 것이다.

文章 구성의 구조 유형을 아래의 기준에 의해 설명하되 文章의 기본 구조가 될 수 있는 三段構成과 四段構成, 五段構成에 重點을 두어 설명하겠다.

[II]

2.1 전개적 구상〔自然的 構想〕

2.1.1 時間的 順序에 의한 文章構造

사건의 시간의 순서에 따라 題材를 배열하고 그것으로써 文章의 構造를 삼는 구상이다. 따라서 단락도 시간의 순서에 따라 전개되기 쉬우므로 그 진행 과정에 의해 文章을 파악해야 한다.

아침에 우는 산새는 매우 情답다. 내 창 밑에 密語를 보내는 그 마음이며! 오늘의 행복을 約束함인가?①

자리에서 일어나 뒷산을 바라보니 北漢山城에는 얽은 안개가 그 산의 얼굴을 알뜰게 가리우고, 산 밑 밤나무에는 이 山의 斥候인 까치가 山谷을 지키고 있다. ②

川邊에 내려가 손을 씻고, 가래나무 밑에서 樹陰의 香氣를 마시다. ③

낮에는 寢床에 누워 명상의 실마리를 몇 번이나 감고 풀고 하다. ④

C君이 왔다 가다. ⑤

밤에는 가는 비가 소녀의 눈물과 같이 부드럽게 내리다. 보슬보슬 마른 땅을 적시는 부드러운 觸手! 大地에 기름을 붓는 내 마음이며!⑥

(노자영: 山家日記)

이 글은 ⑥개의 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① - ② - ③문은 아침, ④ - ⑤문은 낮, ⑥은 밤에 山家에서 느낀 유유자적한 生活心境을 독백 형식으로 쓴 文章이다.

① 내가 언제 이런 곳에 왔는지 전연 알 길 없다.

분명 경회임에 틀림없다. 겨드랑에서 체온계를 빼려는 손을 꼭 잡았다. 손가락이 차다. 경회의 손은 이렇게 냉랭한 적이 없었다. 따뜻하던 지난날의 감촉이 포근히 되살아온다. 눈을 떴다. 그러나, 아직도 머리는 안개가 서린 듯 보야니 흐리멍덩하다.

② “정신이 드나 봐 ……”

경회의 음성이 아니다. 이렇게 싸늘하지는 않았다. 간호원이다. 새하얀 옷이 소복 같은 거리감을 가져온다. 꿈인 것 같다. 그러나, 아무리 따져보아도 꿈은 아닌 성실다. 내 숨소리가 확실히 거세게 들려온다. 틀림없이 심장이 뛰고 있다.

③ 총 소리가--그것도 다섯 방의 총 소리가 거의 같은 순간에 울리던 그 총소리가 아직도 고막에 달라붙어 있다. B가 맞은 건지 내가 맞은 건지 분간이 안 간 대로 그 시간이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다. B가 거꾸러진 건지 내가 거꾸러진 건지 그것조차 확인할 길이 없다. 승부는 났다. 그러나, 내가 이겼는지 B가 이겼는지는 알 길이 없다. 귀를 만져 본다. 찢어졌던 귀바퀴를 꽤맨 傷痕이 사마귀처럼 두툼하다. 그 때는 내가 졌다. 아니, 계속해서 내가 지고만 있었다.

지금도 내가 지고 있는지도 모른다.

- ④ 꿈이라는 별명을 가진 뚱뚱보 선생이었다. 좀 심술궂은 성품이다. 그것이 수업시간도 곧잘 나타났다. 아이들이 귀를 잡아 끄울거나 뺨을 꼬집어 당기는 것쯤은 시간마다 있는 일이었다. 추석 다음 날이었다.

(全光鏞: 射手)

이 글의 시간적 순서는 ④→③→①,② 이다. ④는 '꿈'이라는 별명의 심술궂은 선생의 습관--귀를 잡아 끌거나 하는 것은 ①,② 훨씬 이전에 있었던 경험이다. ④는 ①,②의 '귀'의 사건과 연관되어 회상되는 대목이다. ④는 ①,②보다 과거의 일이다. ③은 ①,②의 결과를 빚은 사건이다. 자연의 시간(time in nature)을 체험의 시간(time in experience)으로 질서화한 글이다. 따라서 이 글은 시간의 逆行에 의한 接續이다.

[A] 奴隸獲得 部族同盟을 거쳐 國家를 형성하기에 이른 高句麗 · 百濟 · 新羅의 初期藝術까지를 우리는 힘의 예술이라 본다. 이러한 藝術은 그 結構가 雄建하고 節調가 莊嚴하며 表現이 要約의임을 특색으로 한다. 細部에 致心하지않고 威義에 置重하는 이 藝術은 곧 權力과 精神力의 強大 悠張 廣闊에서 유래하는 것이다. 이에서 우리는 노예 획득에서 부족국가로 다시 統一國家에 이르려는 힘의 平面的 空間的 擴張 充滿의 意慾을 찾을 수 있으니 이 예술에서 우리는 非彫刻的인 架構造型의 발단을 볼 수 있으나 藝術的 思考로서의 冥想의 情緒를 볼 수 없으며, 獨裁的 國家의 權力과 信仰의 神의 威력이 合一되어 연관적 調和를 이룬 것은 찾을 수 있으나 그 創造 意慾이 권력의 誇張的 表現에 있었다는 것도 쉽사리 看破할 수 있는 것이다.

[B] 奴隸社會에서 발달된 힘의 藝術이 本格的으로 藝術意識의 胎動에 의하여 일어난 것이 꿈의 예술이다. 우리는 이 藝術이 이루어지기 까지에는 佛敎의 傳來라는 사실을 잊을 수가 없다. 물론, 불교를 받아들일 수 있는 信仰의 基盤은 샤아머니즘을 根幹으로 한 民間信仰에서 준비되어 있겠으나, 이 세련된 外來 文化인 불교의 法悅과

新興意慾에 불타는 國民的 野性이 渾然合一되어 이루어진 이 예술은 封建社會로의 轉化過程이란 時代的 脚光을 받아 난만히 꽃피기 시작한 것이다. 이의 예술 정신이 政治的 및 武力的 面에서 이루어진 것이 花郎道라는 것을 우리는 看過할 수 없으며, 이 예술의 思想的 根據가 華嚴思想에 통하여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주시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 藝術에서 우리는 생동하는 精神(內容)과 理想하는 肉體(形式)의 표현이 均整됨을 볼 수 있으니 吐舍山 石屈 속의 八部衆 兩仁王 四菩薩 九面觀音 十大弟子의 整然한 排列 위에 이의 統制로서 鎮座한 釋迦像의 威容을 보라. 우리는 여기서 豐壤하고 밝은 冥想을 하는 情緒를 볼 수 있으니, 온화하면서도 결코 무력하지 않은 실로 하나의 크나큰 法悅의 靈魂을 찾을 수 있다.

(C) 슬픔의 예술에서 우리는 무엇을 새로 찾을 수 있는가. 威儀는 몰락되고 명랑은 퇴색하여 그의 정신은 虛無와 悲哀에서 享樂的 浪漫으로 기울어 졌고 規格은 散亂되고 節調는 低徊하여 그 技法은 不均整에서 非相稱으로 흐르기 시작했던 것이다. 그러나, 그 허무한 슬픔 속에는 항상 反省과 冥想, 希求와 信仰, 諦念과 達觀, 이런 착잡한 감정이 純化되어 별다른 理想界를 예술작품 속에 찾고 세웠으므로 허무의 사색은 그들의 아프고 괴롭고 고단한 속에 이룩한 낭만의 고향이요, 회구하는 이상향이기도 하였다. 허무의 슬픔은 靜寂의 美를 이루고 非相稱 不均靜의 정신은 自然한 人工의 極致를 나타내어 우리의 예술이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한 경지를 연 것이다. 高麗 磁器가 풍기는 그윽하고 깨끗하며 깊고 아름다우며 맑고 고요한 향기는 모두 자유롭고 자연스러운 細長한 線을 통하여 나타난 것이다.

(D) 멋의 예술은 슬픔 속에 信念의 힘을 갖춘 것이 자랑이요, 素朴하고 구수한 가운데 밝고 휘영청거리는 것이 그 特長이다. 「朔風은 나무끝에 불고」, 「閑山섬 달 밝은 밤에」와 「壁上에 칼이 울고」 등의 時調에서 이러한 藝術의 힘을 느낄 수 있으며 「재 너머 成觀農 집에」, 「짚방석 내지마라」든가 「졸다 낙시대 잃고」 등의 시조에서 이 藝術의 風流를 느낄 수 있으며, 白磁의 태갈에서 素朴美의 한 形態를 잡을 수 있는 것이다. 이 예술은 슬픔의 예술의 孤高性보다는 오히려 平民性에 통하는 것으로 俗과 雅의 境界線 위를 넘나드는 自然的 律動인 것이다.

이 글은 한국 예술 사상사의 기본적인 성격을 체계화한 글이다. 각 단락에 나타난 예증들을 볼 때 그 시대와 그 시대적 예술을 말하고 있다. [A]에서는 부족 국가로부터 삼국 시대 초기까지의 '힘의 예술'에 대해 [B]에서는 삼국 시대 후기에서 통일 신라까지의 '꿈의 예술'을 [C]는 고려 시대의 '슬픔의 예술' [D]는 이조 시대의 '멋의 예술'을 시간적 구성법에 의해 전개하고 있다.

2.1.2 空間的 질서에 따른 文章構造

一般的으로 공간 속에 존재하는 것이나 體系를 밝히는데 쓰인다. 실제, 먼저 전체 윤곽을 밝히고 절차로 각 부분이 그 전체와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가를 밝혀 나가야 한다. 기행문이나 일기문에 많이 쓰인 방법으로 먼 곳에서 가까운 곳으로, 가까운 곳에서 먼 곳으로 전개되는 원근법이나 파노라마식 구성은 공간적 구성법이다.

- ① 山城 西門 안으로 발을 옮기면 백제 시조 은조왕을 모신 사당이 있다. 곧, 일장산 서북 중부에 있다. 병자호란때 인조대왕이 이 산에 농성해 계실 때 지으신 祭殿이다.
- ② 다시 숨을 헐떡거리 산성의 최고봉을 올라가면, 이것이 곧 450미터나 되는 日長山의 꼭대기다. 古色이 蒼然한 西將臺가 있고, 대상엔 無忘樓 석자를 쓴 현판이 달려 있다. 병자호란을 잊지 말자는 뜻이다. 40평이나 되는 넓은 터전을 차지한 집으로, 아래 위층 장엄한 건물이다. 英祖朝에 유수 李箕鐱이 건축한 것이니, 현존한 山城 속에 가장 그 규모가 큰 집이다. 수어사가 貝軍服, 密花貝纒으로 장대에 올라, 칼을 빼어 수만 軍兵을 호령하던 곳이다.
- ③ 탁 열려진 眼界는 一瞬에 경성, 양주, 양평, 고양의 모든 산천이 내려다보이고, 회멀꿈 인천 바다엔 夕照가 끊어올라 시뻘건 불덩이 같다. 다시 눈을 가까이 돌려 발 아래 한강을 굽어보니, 무심한 듯 유심하고 한가로운 듯 바쁜 두어 척 고깃배가 돛대에 바람을 배불리 실고 그림같이 돌아든다.

(朴鍾和: 南漢山城)

이것은 ① 山城西門안 은조왕의 祭殿/② 최고봉--日長山 꼭대기

→西將臺/③ 眼界의 경관--경성, 양주, 양평, 고양, 인천 앞바다, 한강'의 짜임을 보이는 글이다.

- ① 서울역에서 남으로 향하여 한강 인도교를 건너가면, 한편으로는 흑석동으로 넘어가는 언덕길이 뻗었고, 우편으로는 사육신 무덤이 있는 산을 돌아 영등포로 향한 아스팔트길이 플라터너스 가로수의 그늘을 받고 뻗어 갔다. 노랑진 장터를 지나면 바로 왼편으로 넓은 오르막길이, 산허리를 굽이굽이 돌아 올라가는 길이 있다. 이 오르막길을 아침저녁으로 오르내리는 산 너머 사람들은 이 고개를 아리랑고개라고 한다. 산 너머 사람들이라고 하면 마치 두메산골 사람으로 관념할지 모르나, 이 아리랑고개를 넘나드는 사람들은 대개가 서울 장안에 직장이 있는 공무원이나 사무원인, 양복을 입은 한국의 지식인들이다. 처음으로 이 아리랑고개를 올라선 사람이라면 깜짝 놀랄 것이다. 플라터너스 가로수가 우거진 넓은 길이 좌우로 갈라져 내려가고, 종로 화신 앞 같은 로터리가 있기 때문이다. 이 로터리로 해서 동서남북으로 갈라진 십자로 길 가로는 주택영단, 똑 같은 형의 특호주택이 즐비해 있다. 이 로터리에서 서로 향한 길을 내려가면 또 아담한 로터리가 있다. 여기에서 동으로 관악산을 바라보는 가로수가 늘어선 길 한복판으로 맑은 산물이 흘러 내리는 개천이 있다. 이 개천 양편으로 수양버드나무 늘어진 가지가 푸른 바람을 받고 실가지를 개천에 적신다. 멋진 길이 이러한 데 있으리라고는 상상 못할 것이다.
- ② 이 로터리 길을 기점으로 주택이 좌우로 줄지어 아득히 보이는 산허리까지 뻗어 있었다. 잔잔하게 계곡을 타고 자리잡은 똑 같은 형의 특호주택, 똑 같은 형의 갑호주택, 똑 같은 형의 을호주택이, 줄줄이 좌우로 마치 전차 기갑사단이 푸른 기를 꽂고 관병식장에 정렬하여 서 있는 것 같은 감정이다. 관악산의 줄기가 병풍처럼 천여호의 주택을 둘러쌌다. 이 주택촌을 상도동이라 한다.

(金光植: 213號 住宅)

이 글은 ① 에서는 '서울역→한강 인도교→노랑진 장터→왼편 오르막길(아리랑 고개)→플라터너스길→로터리→주택영단→개천'으로

移行하고, ② 에서는 보다 주택가에 접근하여 상도동을 명시한다. 결국, '서울역 → 상도동'의 공간적 구성이다.

소설에는 이런 공간적인 진행이 많다. 자연스럽게 묘사성을 띠게 된다. 이는 遠近法(perspectivism)에 의한 전개다. 遠近法은, ① 먼 데서 가까운 데로, ② 가까운 데서 먼 데로의 두 가지 방법이 있다. 대개 前者를 많이 취한다.

- ① 서해안인 弘濃 모래밭에는 어린 학생 오륙 명과 한 사람의 동료가 함께 놀았는데, 그 때는 마침 달밤이라 끝없이 열린 모랫벌을 맨발로, 부드러운 촉감에 흘러 끝없이 나갔다. 푹푹 빠지는 발자국에는 난들난들 찬물이 피어 발밑의 간지러움을 즐기는 차에 갑자기 물려드는 물길에 놀라 되돌아오는데, 모래는 쉽사리 발목을 놓아 주지 않고 물결은 종아리에 휘감겨, 우리는 손에 손을 잡고 허둥지둥 달려오던 그 장면이 아직도 아슬하게 펼쳐지는 것이다.
- ② 원산의 송도원에 R이란 文友와 동행이 되었는데, 희디흰 백사장에 점점이 피어 있는 해당화의 그 곱고 가련한 모습과 그 새파란 연둣빛의 파도가 기동처럼 높이 솟았다는 철썹 부서지며 좌악 밀려 들이닥치면, 그 수평선의 水面이나 느낄 듯이 손을 펴서 그 물을 받아 쥐던 자신이 한껏 귀엽게 회상되었다.

(朴花城: 여행과 아롱지는 回想)

이것은 회상의 장면이 並列的인 공간이동을 하여 보인다. ① 은 서해안 홍농 모래밭, ② 는 동해안 원산 송도원이다. 시간적 구성법과 공간적 구성법은 동시에 섞여 쓰일 수도 있다. 紀行文이 그 대표적인 例다.

2.2 論理的 構想〔綜合的 構想〕

논리적 구상은 쓰고자 하는 바를 인위적으로 論理를 세우는 것으로 필자의 主體的 의지에 의하여 文章構造를 決定함을 말한다. 논리적 구상은 文章의 論理的 構造가 뚜렷하므로 文章 分析에 그 構

造를 應用해야 한다.

2.2.1 三段構成

文章의 構成에서 근간이 되는 構造型이다. 흔히 序-破-急, 導入-展開-整理라고 표현되고 있으나, 序-本-結論 이란 명칭이 一般的이다. 그럼 序論, 本論, 結論의 내용은 어떻게 구성되는가?

① 序論의 構成內容 :

서론에서는 ㉠ 글쓰는 동기, 주의 환기, 흥미 유발 등만을 나타내는 방법과 ㉡ 내가 왜 이 글을 쓰고, 무엇을 쓸 것이냐 하는 것을 나타내는 論旨提示를 쓰는 경우가 있다. 序論의 구성 形態를 살펴보면 ㉠만 나타내는 경우, ㉡만 나타내는 경우, ㉠과 ㉡가 한 단락 속에 나타나는 경우, ㉠과 ㉡가 두 형식 단락으로 나타나는 경우 4가지 경우를 볼 수 있다.

② 本論의 構成內容 :

序論에서 提示된 論旨를 具體化하여 증명, 해결하는 단계로 文章의 構成에서 가장 核心的인 部分이다. 序論과 結論은 생략될 수 있으나 本論은 생략될 수 없다. 本論만을 씌으로도 훌륭한 文章이 구성된다. <한국의 미:김원룡, 학문:베이콘>의 글은 本論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간과 文化:이광규>는 서론-본론으로 구성된 글이다.

③ 結論의 構成內容 :

㉠ 本論에서 해명한 내용을 요약하는 要約型 ㉡ 요약하지 않고 결의하자, 실천하자와 같이 촉구하는 行動化型 ㉢ 本論의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 論旨와 關係있는 다른 사실을 보충하는 첨가형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예를 들면 [한국의 사상]에서 결론은 본론의 요약이 아니라 “우리를 알고 우리를 찾자”라는 行動化型이며 [기미 독립 선언문]에서는 “우리 민족의 결의”를 촉구하고 있는 行動化型이며 [단편 소설의 특징]에서는 본론의 요약이 아니라 20세기 단편 소설의 새 경향을 첨가해서 文章의 결론을 맺고 있다.

環境은 사람을 만든다. 孟母의 三遷之敎가 바로 여기에 근거를 둔 말이다. 그러나, 그 社會의 尙상 발전은 실로 이러한 消極的인 環境 적용에서 벗어나 그 社會 環境을 보다 좋게 美化 改善하는 적극적인 공동협력 없이는 이룩되기 어렵다. 나는 이러한 우리의 共同努力의 一端으로서 言語環境의 美化를 主張하고자 한다. 言語는 그 사람의 사람됨을 표현하는 데 그치지 않고 바로 그 사람이라고 까지 力說한 이가 있다. 그렇다면, 한 社會의 言語環境은 그 社會의 表現이요, 마음이라 하겠다. 그 社會의 모든 사람들이 아름다운 마음을 그 말에 담아 나타낼 때 그 社會의 言語環境은 아름다움에 充만할 것이요, 同時에 그러한 言語環境은 그 社會의 모든 사람의 마음 속에 不知中 아름다운 마음을 불러 일으킬 것이다. 말하자면, 環境과 主體는 서로 만들고 만들어져 力動的으로 상호 작용을 하며 美化 改善의 길을 달리게 된다. 이와 같이 우리의 言語環境을 미화하는 일은 우리 스스로를 미화하는 일이요, 그 길은 곧 모든 사람의 아름다운 마음을 담은 말씨로부터 비롯한다고 하겠다.

이 글은 三段構成의 典型的인 것이다. 序論에서 社會 環境 개선의 하나로 언어 미화의 주장을 제기하여 論旨를 提示하고 本論에서는 언어 사회와 인간과의 重要性을 해명하여 그 근거를 제시하고 결론에선 本論을 요약하여 언어 환경의 미화는 말씨로부터 비롯된다고 끝맺고 있다.

幸福한 돼지가 되기보다는 不幸한 소크라테스가 되고 싶다고 하는 말에는 매우 感動的인 데가 있다. 그러나 과연 소크라테스는 不幸한 사람이었을까.

不幸한 소크라테스란 말은 소크라테스를 겉으로만 봤을 때의 말이다. 소크라테스는 아테네의 거리를 맨발로 걸어다니고 있었을 때 틀림 없이 不幸하지 않았던 것처럼 獄中에 있어서도 그는 결코 不幸하지 않았다. 만약 소크라테스가 獄中에 있어서 不幸하였다고 할 것 같으면 소크라테스는 소크라테스가 될 수는 없었을 것이다.

賢者란 不幸을 알지 못하는 사람의 뜻이다. 어떠한 不幸한 生涯에 있어서도 그 不幸을 不幸이라고 생각지 않는 精神力으로써 賢者は 비로소 賢者가 될 수 있는 것이다.

序論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本論에서 소크라테스는 불행하지 않았다고 문제를 해명하고 결론에서 현자의 要件을 말하여 文意를 확정하고 있다.

- ① 詩를 생활화한다는 말은 곧 시를 짓고 읽으며 시를 맛보고 생각한다는 뜻이다. 詩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든지 야만이라는 말이 있거니와, 詩를 사랑할 줄 모르는 사회는 곧 墮落하고 썩어 가는 사회라고도 할 수 있다. 바꾸어 말하면 詩鑑賞의 度가 깊어 가는 것은 그 나라 文化的 高度化를 의미하게 된다는 말이다. 이러한 요청에서 우리는 詩감상이란 무엇이며, 詩는 어떻게 감상할 것인가에 대해서 몇 가지 생각해 보기로 하자.
- ② 詩鑑賞의 正道는 求心的 共感의 世界를 바탕으로 하고 독자 스스로의 創造의 鑑賞의 세계를 志向함으로써, 각자가 준 바 內容의 방향에 최대한으로 파고 들어가서 즐기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높은 교양과 銳利한 心眼을 갖추고 詩를 사랑하며 시를 지을 줄 아는 作者와 讀者 사이에만 가장 올바른 鑑賞이 성립되는 것이다. 시인이 독자보다 모자라거나 독자가 시인보다 더 깊어 버리는 경우에서의 참된 감상은 성립 될 수 없는 것이다.
- ③ 詩鑑賞은 觀照와 享受와 評價의 세 機能의 복합작용이다. 이 경우에 있어서 '觀照'는 주로 知的 活動으로서 詩作品과 읽는 自我를 兩立시킴으로서 대상—곧 詩의 세계를 상상적으로 捕捉하는 작용이요, '享受'는 情的 活動으로서 自我를 대상인 詩에 집중하고 沒入함으로써 대상을 自己受容하고 체험하는 작용이요, '評價'는 意的 活動으로서 詩 作品에 대한 앞의 두 작용을 관심함으로써 대상의 가치를 反省하는 작용이다. 다시 말하면, 詩鑑賞은 먼저 詩人과 讀者가 兩立하고 다음엔 시인과 독자가 抱擁하고 나중에는 다시 멀어짐으로써 그리워하든지 잊어버리든지 두 길의 어느 하나를 택하게 된다.
- ④ 이상에서 詩鑑賞의 正道와 그 태도를 말하였거니와, 이러한 鑑賞의 修鍊으로써 우리는 未知의 詩人の 詩 한 편을 읽고 그의 인생관과 그 생활과 성격과 그 시인과 시대와 사회를 알게 되는 것이다.
- ⑤ 이러한 앎은 높은 사랑의 경지에 들어감을 뜻하며, 이런 높은 사랑의 경지야말로 詩를 통한 인류의 가치 있는 생명의 모습임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이것이 시의 생활화가 준 값진 선물임을 또한 잊

어서도 안 된다.

(趙芝薰: 詩의 鑑賞)

글의 서론에서는 '무엇'(what)을, '왜'(why), '어떻게'(how)는 최소한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이 글의 첫머리에는 '어떻게'가 생략되었다. 보충해 보라. 또 ③~④의 사이에 시의 文化的 機能을 밝혀야 할 글이 빠져 있다. 즉,

- 서론 : ① 論旨의 제시
 시를 알아야 할 요청
 그 요청에 따라 詩鑑賞法을 알아봄
- 본론 : ②, ③ 論旨의 해명
 시감상의 正道
 시감상의 태도
 곧, 기능면에서 본 세 작용
- 결론 : ④, ⑤ 요약, 論旨의 강조
 시감상의 효능
 意義自覺, 행동화의 촉구

로 분석된다.

- (1) 한국 사람이 겪어 온 고난 극복의 역사가 파란과 곡절로서 아로 새겨질 적마다, 한국의 사상은 폭이 넓어지고 깊이를 더하여 왔다.
- (2) 따라서, 선부른 일면적 고찰로써 한국 사상 전체의 본령을 파악 하기는 매우 어려운 일인 줄 안다. [A]
- (3) 흔히 말하기를 한국 사람은 대체로 현세적, 실제적인 것에 애착 을 가지고 그를 즐기려 하며 중시하려는 경향이 많다고 한다. (4) 그러나, 불교에 있어서 미래불인 미륵불을 숭상하는 것을 보더라도, 우리의 사상속에는 미래와의 관련에 있어서 현재를 파악하려는 태 도도 있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B]
- (5) 현재의 진의는 한갓 현재에만 얽매임으로써 살려지는 것이 아니 다. 현재나 과거의 파악에 있어서, 미래에 대한 태도 여하가 다시

- 없이 중요한 몫을 하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C]
- (6) 한국은 이상하게도, 주로 소극적인 은사의 나라, 더 나아가 애상의 아름다움을 가진 나라로서 널리 알려져 있다. 고려 자기나 애조를 띤 민요의 멜로디가 그렇다고도 한다. (7) 그러나, 이것은 보는 사람 자신이 너무나 애상적인 견지에서 미래에 대한 적극적 건설의욕이 세차지 못할 때에 보이는 일면인 줄 안다. (8) 고구려의 고분벽화, 석굴암의 석가상에는 약동하는 선과 웅온한 기상과 힘이 표현되어 있다. (9) 어느 나라의 민요든 대개 애조를 띤지만, 신라나 고구려의 서울 거리에서 그런 애조를 띤 노래가 흘러 나오곤 하였을지 자못 의심스럽다. (10) 울지문덕의 식귀에서, 화랑도들의 입에서 어디 그런 애상의 자취를 찾을 수 있단 말인가. [D]
- (11) 한국은 반도이기 때문에, 대륙과 섬나라의 틈바구니에서 고난의 역사를 마치 운명적으로 받아들인 것처럼 생각하며 말하는 사람이 있다. (12) 그러나 저 그리이스 반도를 생각해 보라. 또 이탈리아 반도는 어떠하였던가? (13) 고대 그리이스의 문화, 문예 부흥기의 문화는 반도 아닌 어디서 생겨났었던 것인가[E]
- (14) 우리에게는, 우리를 너무나 얽잡아 혈뜬는 좋지 못한 버릇이 있는지 모른다. 반도니까 오히려 종합적인 새로운 문화의 꽃이 필 수도 있고 반도니까 오히려 대륙도 섬나라도 포섭한 운명을 가질 수도 있다. [F]
- (15) 미래에 대한 기백과 계획에서 과거의 역사를 보는 눈을 기르자. (16) 지금 바로, 그것을 살려서 적극적으로 다룰 줄 알아야 할 때가 왔다. 이것은 공연한 허장성세가 아니다. (18) 왜곡되었던 史實을 바로 보자 함이요, 부질없는 편견을 제거하자는 것 뿐이다. [G]
- (19)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한국 사상이래야 불교 사상 아니면 유교 사상일 것이요, 불교나 유교가 모두가 남의 것이 아니냐고 할는지 모른다. (20) 그러나, 기독교라는 것이 동양의 종교였는데 지금은 서양의 기독교 문화권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보아도, 한국의 불교나 유교가 외부에서 전래되었다 하여 사상적인 독자성이 없으란 법이 어디 있겠는가! [H]
- (21) 한국 불교는 선을 위주로 하였으나, 교종을 겸한 조계종이 전체적인 주류를 형성하여 왔고, 그와 관련하여 지눌과 같은 창의적이며 총혜한 고승을 낳았다. (22) 지눌의 사상은 우리 불교의 특색을

- 밝히는 좋은 근거가 될 것이다. (23) 또 흔히 말하기를, 조선 시대는 유학도들의 공리 공론으로 망하였다 하나, 퇴계의 사단칠정론 같은 것은 세계 철학사를 빛낼 우리의 자랑거리가 될 것이다. [I]
- (24) 여기서 백 걸음 천 걸음 양보하여, 우리의 불교 사상에는 독자성이 없었다고 가정하자. (25) 그러나, 한국에는 한국에서 생긴 천도교라는 종교가 있지 않은가. (26) 인내천의 종지는 현대의 그 어느 민주주의보다도 철저하고 깊은 것이 아닐 수 없다. (27) 한낱 정치적인 민주주의가 아니라, 보다 철저한 윤리적 종교적인 민주주의를 제시하는 종교다. (28) 천도교의 인내천 사상에서 보다 더 뛰어난 인간의 존엄성을 고조하는, 휴우머니티를 외치는 종교적 사상이 어디 있는가 [J]
- (29) 논자는 말할는지 모른다. 천도교는 유불선 삼교의 영향 밑에 이를 종합한 것 뿐이라고. (30) 좋다. 그러나, 어느 사상치고 그 유래를 따지자면, 다른 사상의 영향을 받지 않은 것이 하나라도 있을 것인가! (31) 불교나 유교 또는 기독교들 자체도, 모두 그의 전신이라 할까, 또는 간단하다 할 수 없는 유서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32) 천도교도 그런 영향 밑에 서면서 '인내천'이라는 면을 강조하여 한국 사람의 것으로 만든 것이다. [K]
- (33) 한국에는, 실학 사상과 더불어, 서양의 과학이 처음으로 수입되었다. 서양것 배우기에 바쁘다. (34) 그러나 그것도 배워야겠지마는, 거북선이나 활자 발명의 간단한 예에서 보듯이 우리 한국 사람에게 있었던 과학적 소질의 새싹을 찾아 다시 복돋우어 주어야 한다. (35) 특히 젊은이들은 외국 사람에게 조금도 못지 않은 소질과 능력을 길러, 널리 배우는 동시에 우리를 찾자. (36) 한국의 앞날이 그대들과 더불어 희망에 차 있듯이, 한국의 사상이 멀지 않아 뚜렷한 의의와 보람을 나타내는 날이 오고야 말 것이다. [L]

(박종홍: 한국의 사상)

[解明]

* [A]에서 서론

- ○ 이 글의 주의 환기 (1)

- ○ 과제 제시, 논조 표명 (2)

※ 논설의 태도 (논조)는 <사람들이 △△의 관점에서 □□하게 보는데, 나는 xx의 견지에서 ○○하게 본다>는 것이다.

- 이 글의 □□는 한국 사상의 일면적 고찰
- 이 글의 ○○는 한국 사상의 전면적 고찰--필자(논자)의 태도

* [B]~[K]에서본론

· B~K의 본론은 A의 서론에서 내세운 논조가 적용되어야 논리에 맞는 글이다. 과연 그러한가?

- °[B]의 - (3) 일면적 고찰, 그 편견
- (4) 전면적 고찰, 필자의 견해

°[C]필자의 인식 태도 재천명

- °[D]의 - (6) 일면적 고찰, 그 편견
- (7)~(9) 필자의 견해←전면적 고찰

마찬가지로 [E], [F]의 논조를 전개하고, [G]에서 다시 인식 태도를 천명, 확인시키고,

[H]~[K]도 같은 논법으로 일관하고 있다.

* [L]에서결론

- (33) 은 현실의 모습 소개
- (34) 는 태도의 확립 촉구
- (35) 는 행동화 제창
- (36) 미래에의 확신

* 따라서, 이 글은 논지가 명확하고, 전개 수법이 논리에 합치되는 달문이다.

아니꼽고 역겨운 현실을 반대하는 모반인(謀叛人). 그들은 언제나 무지와 편견과 부당한 폭력으로부터 인간을 구출하는 데서 그들의 삶의 보람을 찾고자 하였다. 그리고 그 어느 시대 어떤 겨레에

있어서나, 이 같은 사람들이 있어 왔기 때문에 인류의 문화는 항상 하면서 발전하여 왔던 것이다. 여기 우리는 우리의 문학사 위에서 아니꼽고 역겨운 현실에의 모반인 김시습(金時習)이 있었음을 기억함으로써 우리 문화의 명맥이 새 힘을 얻었음을 알아야 할 것으로 안다.

이조초기 조고계(操孤界)의 천황(天荒)을 깨뜨린 전기(傳奇)문학의 백미(白眉)라 일컫는 [금오신화](金鰲新話)의 작가 김시습은 그의 지닌 바 강한(剛悍)한 성격과 그가 겪은 바 기구한 생애로 말미암아 후세 호사가(好事家)들의 야사(野史), 수록(隨錄)의 좋은 소재로 취재(取材)되어 많은 문헌들에 전승(傳承), 기록되면서, 시로 역사상에 드문 신인술가(神人術家), 괴한기승(怪漢奇僧)으로 알려져 왔던 것이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가 접하는 문헌에 의하면 실재한 김시습과는 아주 거리가 먼 가공적이고 이상화된 인물로서 나타나 있음을 본다.

이에 우리는 모두 난관을 무릅쓰고 이 왜곡되고 변모된 김시습의 전면목을 정확하게 바로잡고 올바른 위치로 자리잡게 하기 위하여, 우리는 첫째로 성실하고도 주도(周到)한 문헌학적인 조업(操業)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할 것이며, 둘째로 그의 인물과 사상을 길러낸 그 시대의 역사적인 성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한다는 두 가지의 조건을 전제로 하여야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에 필자의 보는 바로는 김시습은 적어도 다음에 드는 세 가지 각도에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믿는 바이다. 첫째로 김시습은 이 조건국 당초의 이른바 훈구파(勳舊派)인 기성세력에 감연(敢然)히 육박하면서 성장하여 가는 신흥 사류파(士類派)의 동반자적 전위분자(前衛分子)로서, 굽힐 줄 모르는 정치적 양식(良識)을 지닌 불우한 이 정객이 어떠한 생애를 살았는가를 검토하여야겠다. 둘째로, 유불교체기(儒佛交替期)에 위치한 한 사람으로 지식인으로서 철두철미하게 현실을 부정하려는 불교이념에 입각한 생활태도와, 이와는 상반되는 교양과 양식으로 정신무장을 이루고 있는 유교이념과의 틈바구니에 번민하면서, 이 양대사상을 한 사람의 사상가로서 어떻게 지양, 극복하였는가를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로, 그와 같이 불굴의 정치적 양식을 지닌 전환기의 사상가의 한 사람으로서, 때로는 인생을 부정하면서 때로는 추오(醜汚)하고도 가증(可

憎)한 현실과 타협하지 않으면 안 되는 자기분열(自己分裂) 속에서 번민하는 그의 실존을 작품활동을 통하여 어떻게 형상화시켜 내었는가를 검토함으로써 문학가 김시습의 역사적 진가를 찾아 내야 한다고 본다.

(정병욱: 김시습연구)

위의 예문은 주의를 환기하는 일반적 진술과 과제를 제시하는 특수진술, 곧 '무엇'(what)을 밝힌 다음, 연구하는 이유 곧 '왜'(why)를 진술하였으며, 관점이나 방법론인 '어떻게'(how)를 기술하는 순서로 전개되었다. 이 글 전체의 구성은,

I. 머리말

II. 본론

1. 관계문헌의 정리

2. 생애와 생활

1) 시대배경

① 정치적 배경, ② 문화적 배경

2) 전기(傳記)와 생활

① 修學期, ② 放浪期, ③ 金鰲期, ④ 失意期, ⑤ 晩年

3) 인물과 사상

① 교우관계 ② 성격 ③ 사회관 ④ 유교사상

⑤ 불교사상 ⑥ 작품에나타난 사상

III. 마무리

로 되어 있다.

2.2.2 四段構成

漢詩의 起, 承, 轉, 結에 의한 文章構成法이다. 三段構成의 本論을 展開(承)와 發展(轉)으로 양분하여 이루어진 구성법이라 할 수 있다. 이 構成法에서는 轉의 내용이 어떻게 전개되느냐, 어떤 내용을 나타내느냐가 초점이 된다. 轉은 이론문에서는 <承>에서 말하고

자 하는 내용을 예증하고 논증하고 비유하여 具體化시킨 경우와 또는 漢詩에서 보듯이 話題의 內容을 一轉시켜 내용을 강렬하게 表現한다든가, 다른 사실을 나타내든가 하여 필자의 의도와 글의 내용을 확실하게 전개한다. 예를 들면

나는 학생 시절에 병이 나서 충청도 어느 시골에 가서 몇 달 휴양을 한 일이 있다. 그때 내가 묵고 있던 집 할아버지의 권고로, 용하다는 한약국에 가서 진찰을 받고 약을 한제 지어 먹은 일이 있었다.

그 의원은 한참 내 맥을 짚어 보고서는 전신 쇠약이니까 녹용과 삼을 넣은 보약을 먹어야 한다고 하였다.

그런데, 자기 약방에는 약재가 없고 약 살 돈도 당장 없다고 하였다. 사실 낡은 약장에는 서랍이 많지 않았고, 서랍 하나에 걸려 있는 저울도 녹이 슬어 있었다. 약국 천장을 쳐다보아도 먼지 앉은 봉지가 십여 개 매달려 있을 뿐이었다. 어쨌서 내 마음이 그에게 끌렸던지, 그 이튿날 나는 그 한의와 같이 사 오십 리나 되는 청양이라는 곳에 가서 내 돈으로 내가 먹을 약을 사고, 약국을 해 먹으려면 꼭 있어야 된다는 약재를 사도록 돈을 주었다.

약의 효험인지, 여름 시냇가에 날마다 뉘시질을 하고 밤이면 곤히 잠을 잔 덕택인지 나는 몸이 건강해져서 서울로 돌아왔다. 내가 돌려 주었던 그 돈은 받았는지 받지 못하였는지 지금은 생각이 나지 않는다.

나는 그 후, 셰익스피어의 극 [로미오와 줄리엣] 속에서 로미오가 독약을 사는 약방, 먼지 앉은 병들과 빈 상자들을 벌여 놓은 초라한 약방이 나올 때, 비상조차도 없는 충청도 그 약방을 회상하였다.

양복 한 벌 변변한 것 못 사입고 사들인 책들을 사변통에 다 잃어버리고, 그 후 5년간 애써 굶어 모은 나의 책은 겨우 삼백 권에 지나지 않는다. 나는 이 책들을 내가 기른 꽃들을 만져 보듯이 어루만져 보기도 하고, 자라는 아이를 바라보듯이 대견스럽게 보기도 한다.

물론 내가 구해 놓은 이 책들은, 예전 그 한방의가 나한테서 돈을 취하여 사 온 진피, 후박, 감초, 반하, 행인 같은 것들이다.

그런데, 우황, 옹담, 영사, 야명사 같은 책자들이 필요할 때면 나는 그 시골 약국을 생각하게 된다.

起에서 한약방에 간 사실 소개로 흥미 유발을 시켜 承에서 起의 내용을 부연하여 시골 한약국의 인상을 쓰고 있다. 轉에서는 話題를 一轉시켜 장서에 대한 애착심을 말하였고 結에서는 빈약한 자기 장서를 시골 한약국과 견주면서 두 개의 소재가 하나로 귀결되고 있다.

대저, 文學이란 우리들 社會에 도움이 되는 것일까? 도움이 된다면 어느 의미에서 도움이 되는 것일까? 이러한 命題는 옛부터 오늘날 까지 많은 文學者들을 괴롭혔고, 또한 지금도 의견의 대립을 보고 있는 문제이다.

藝術을 위한 藝術을 한다는 이들은, 문학의 效用 문제는 아예 問題視하지 않는다. 그들은 무엇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문학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인간적 本能에 따라 미와 표현에의 충동으로 문학을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본능이나 충동에 따라 제작된 문학도 사회와 관련이 전혀 없을 수는 없다. 그것이 사회에 善한 영향을 미치겠는가, 나쁜 영향을 미치겠는가에 대해서는, 한 藝術家로서가 아니라, 우선 한 인간으로서 마땅히 고려해야 할 문제가 아니겠는가? 즉, 그것은 '文學以前'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로망·롤랑은 '近代의 音樂家' 가운데에서 大作曲家 베를리오즈(Berlioz)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썼다. --- 어느 날 그는 훌륭한 樂想이 머리에 떠올라 작곡에 착수했다. 그런데, 몇일 후 공교롭게도 그의 妻가 중병을 앓게 됐다. 그는 작곡을 계속하지 않으면 樂想이 흐려질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좋은 곡을 만드는 일보다는 妻의 병에 마음을 쏟는 것이 인간으로서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文學以前'이란, 이 挿話의 경우와 같은 命題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리고 이것은 創作된 作品의 對社會 관계에 대해서도 아울러 늘 惹起되는 문제이다. 그러면 이 명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즉, 베를리오즈처럼 생각할 것인가? 아니면, 그반대로 생각할 것인가? 그것은 참으로 痛烈한 딜레마가 아닐 수 없다. 예술가는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건 간에, 그의 생애를 통하여 그러한 문제로 괴로와 하지 않을 수 없게된다. 이러한 일로 진지하게 괴로하는 사람이야 말로 참다운 예술가일 것이다.

베를리오즈는 아내를 간호하느라고 결국 그 곡을 완성하지 못했지만, “그러했기 때문에 나는 착한 예술가”라고 日記에 기록했다는 것이다. 적어도 이 ‘文學以前’의 인간으로서의 문제를 소홀히 하고 文學의 人間的 效用을 무시하는 생활 태도로서는 아름다운 예술을 창조하기가 힘들 것이다.

훌륭한 문학 작품은 우리들에게 마음의 安慰를 줄 것이고, 때로는 인생의 문제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해 줄 것이며, 또한 삶을 영위하는 새로운 설렘을 불러 일으켜 주기도 한다. 문학 책을 읽는 것이 인간형성의 길이 된다든지 하는 것도, 이러한 까닭에서일 게다.

굳어가는 메카니즘 속에서, 전쟁의 공포 속에서, 富의 偏在 속에서, 노이로제와 인플루엔자 같은 疾病 속에서 현대인은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현대는 엇갈리고 어리둥절하기만 하다 하지만 문명과 인간이 분리될 수 없듯이 우리의 삶과 문학은 따로이 존재하지 않는다. 문명의 병폐속에서, 퇴폐해 가는 메카니즘 속에서, 문학은 알찬 것발을 들고 우리들의 가슴 속에 삶의 불길을 불러 일으킨다.

문학을 高踏的인 것도 아니며, 굴처럼 달콤하거나 재미있는 것만도 아니다. 전쟁고아의 눈물과, 불타버린 敎會堂의 폐허에서 문학은 잉태한다. 가난한 소시민의 판자집 언저리에서, 문둥병 환자들의 절망적인 생활 주변에서 문학은 싹튼다. 어린이 유괴사건과 絶糧農家의 장탄식과 밤하늘에 눈물겹게 여음짓는 안마장이의 가냘픈 피리 소리에서 우리는 문학의 숨결을 느낀다.

이 글은 문학의 효용성 여부를 논하는 글이다. ‘起’에서는 문학은 사회에 도움이 되는 것일까 하여 문학의 효용성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承’에서는 예술을 위한 예술을 주장한 탐미파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보이고 있다. 즉 문학의 효용성을 무시한 작품은 문학이전의 문제라고 하고 있다. ‘轉’에서 ‘그러면’은 이 글에서 큰 시사점을 주고 있다. 문제점의 해결법을 제시한 것이다. 그 결론으로 문학이전의 문제를 소홀히 하고 좋은 예술을 창조하기는 어렵다고 하고 있다. 이 단락은 轉의 단락으로 전체 주제가 집약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 (7)과 (8)의 단락에서는 병든 현대 속에서 문학은 삶의 불길을 일으킨다는 ‘문학의 힘’을 첨가하고 있다. 그러므

로 이글의 구조는 起承轉結의 構成으로 轉에 中心段落이 놓여 있으며, 예술 지상주의를 비판하면서 문학의 효용성을 강조하고 있다.

할머니의 시집은 불씨를 떨어 뜨렸다가는 쫓겨가게 된다는 시집살이었다.

불씨래야 산에서 굵어온 갈퀴나무로 댐 불이니, 불들을 꼭 눌러 두어야 하지 화젓가락으로 해쳤다가는 당장에도 재가 되어버리는 잿불이었다.

종일 담배대를 놓지않는 시아버지는 꼬투리를 화로에 꼭박고 뽀뽀 빨아서 불을 붙인 다음에는, 또 불손으로 차곡차곡 눌러 두어 꺼뜨리는 일이 없는 시아버지였다.

사랑방에도 부엌에도 잿불 화로의 불씨가 끊어져서는 집안이 망한다는 것이었다.

신랑보다도 대감보다도 고이 모시기에 머리 빠질 지경이었다.

하루 아침 불씨가 꺼져서 할머니는 간담이 서늘했다. 호호 불어도 후후 불어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었다. 큰일났다.

살그머니 뒷집으로 가서 불씨를 얻어왔다. 그것을 시아버지는 사랑방에서 뵈히 보고 있었다. 본가로 가라는 것이었다.

며느리가 옷을 갈아입고 하직 인사를 하여 들어가서 의젓이 말했다.

“아버님께서 가라 하시니 가겠습니다만, 억울한 사정이 있습니다.”

“억울한 사정? 그게 무슨 소리냐?”

“사실은 뒷집에서 불씨를 얻어온 것이 아니오라, 엇저녁에 빌려 준 것을 오늘 아침에 받아 온 것입니다.”

시아버지는 한참이나 말이 없다가 얼굴이 풀렸다.

“허허! 그랬더냐? 하마터면 내가 실수를 할 뻔했구나!”

속으로는 무릎을 쳤다는 것이었다. 그만한 국량과 주제가 있는 며느리라면, 불씨쫓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었다.

불씨를 매개체로 하여 옛날 양반집의 준엄한 법도 속에서 오가는 가족 사이의 인정미를 유머러스하고 간결한 필치로 써놓은 풍토이다. 이 구성 또한 ‘起’에서는 할머니의 시집은 법도가 준엄하다. 承에서는 불씨를 꺼뜨린 사건을 말하고 轉에서는 며느리(할머니)의

기지로 쫓겨남을 면하는 것을 암시하면서 화제를 일전시키고 있다. 그리하여 결에서는 할머니는 소박데기를 면했다는 필연성을 도출시키고 있다.

大自然! 시간이 무한한 수레바퀴는 오늘도 저 해를 서산위에 굴러다 놓았다. 現實 紅爐의 猛烈한 화염은 간단없이 타고 있다. 短杖을 짚고 잠깐 물러나, 이제 홀로 默念하노니 진실로 괴로와라. 어느 곳에 慰撫의 그늘이 나를 부르나, 찾아 갈 곳은 오직 저기 --- 저기는 우리의 傳說이 얽힌 森林 저기는 우리의 노랫가락이 흘러내리고

長江, 그리고 저기는 우리의 피와 땀이 방울방울 배이고 배인 野原과 村落 --- 그렇다. 저기 내 國土 大自然으로 밖에 나의 갈 곳이 어디랴. 내가 이런 생각으로 전에도 南船北馬로 大自然 巡禮를 수행하여 방심한 적이 없었던 것이요, 장차로는 오히려 이것이 내 생활의 전부가 될 날이 와 주기를 바라도록 나는 대자연에 귀의하는 자이다. 한국의 대자연 앞에서 나는 한 信徒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니, 나의 超理論的 頂禮心은 나 자신도 어찌할 수 없을 뿐더러 또한 나 같은 樸訥한 凡夫로도 그 앞에 가서만은 法悅을 느끼고 감격을 얻을 만큼 그의 거룩함을 찬송하는 수밖에 없다.

이 글은 속세적인 번뇌에서 떠나 내가 귀의할 곳은 이 조국의 자연 밖에 없다고 국토 대자연을 예찬한 글이다. 이 같은 내용을 구체화 시키면 '기'에서는 '세속적 현실에서 느끼는 괴로운 심정을 어디서 달랠 것인가?' 하고 문제를 제기하고 '승'에서는 국토 대자연 밖에 나의 갈 곳은 없다고 하면서 轉에서는 국토 대자연의 순례가 내 생활의 전부가 되기를 바란다고 하여 이 글의 주제인 국토대자연 귀의의 염원을 노래하고 있다.

새로운 生氣가 약동하고 있다. 희망이 戰取된 것이다. 이 정신적인 變換은 값싼 諦念이 우리의 본성이 아님을 일깨워주었다. 모든 依存的이고 낡아빠진 타습을 拔本塞源하자. 虛脫한 弱者의 分別없는 自虐도 진리를 矚보이려고 대드는 독재의 무모도 용납되어서는 안된다. 우리는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勇氣도 좋고 단절도 좋다. 그러나 사상적인 깊이가 없는 生活態度는 뒤흔들리기 쉽다. 행동이 한

것 불만의 폭발로서만 시종하고 거기에 건설적인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면, 그것은 질서없는 혼란을 가져올뿐, 모처럼 찾은 희망을 잃어 버릴 우려조차 없지 않은 것이다. 현대는 宇宙 로케트가 발사되는가 하면, 反抗精神이 논의되고 있는 시대이다. 객관적인 정밀성과 더불어 내면적인 성실성이 요구되고 있다. 현대인의 知性은 극도로 날카로와 지기만 하고, 모랄은 一貫된 信條를 잃어, 겉으로는 참신하고 華美한 듯 하면서도 속으로는 확고한 窻대가 없이, 生 自體의 內實이 충만되어 있기보다는 분열된 채로 들떠 있는 것만 같다. 머리는 약아질 정도로 약아지고 있건만, 하나의 사람으로서는 계구실을 옳게 다하고 있는가 매우 의심스럽다. 그리하여, 현대인의 모든 궁극적인 고민은, 따지고 보면, 知性과 모랄에 관계된 것이요, 문제해결의 난관은 특히 知性과 모랄의 兩者가 하나의 구체적인 現實生活에 있어서 제대로 긴밀하게 융합되어 있지 못한 데 있다. 科學教育과 倫理綱領이 하나의 生活理念을 기반으로 하여 통일되어 있지 못하고 있으니, 우리의 指導理念이 뚜렷하지 못한 까닭도 이런 점에 있는 것 같다.

이 글은 현대인의 고민과 문제점을 지성과 모랄이 융합되어 있지 않는데 있다는 논제를 사단 구성법에 의해 논하고 있다. '기'에서는 '새로운 시대가 약동하고 있다'라는 도입을 '승'에서는 우리는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라는 문제를 제기하고 '전'에서는 화제를 전환하여 현대인의 지성과 모랄이 융합되어 있지 않은 양상을 말하고 있으며 '결'에서는 '승'의 문제 제기의 해답인 '우리는 지성과 모랄이 융합된 생활을 해야한다'는 주장을 전개하고 있다.

오늘 날의 사람도 太陽이 東에서 西로 가는 것을 보나 그 이유를 古人과는 달리 說明한다. 지구가 自轉하는 원인으로 因하여 그 현상이 생긴다고 한다. 우리는 感覺 與件을 理性에 의하여 해석함으로써 事物을 이해한다. 人間 知識의 첫 段階는 感覺的 여건을 神話的으로 해석함이었으나, 學問이 점점 진보함에 따라 眞正한 認識은 感性에 주어진 것을 理性으로 파악하는 것으로 바뀌어졌다. 理性으로 파악한다는 것은 概念을 通하여 事物을 이해함이다. 現代人은 學問에 대하여 論議하려면 科學에 대하여 말하지 않을 수 없다. 科學은 學問 發達의 最後 段階요, 近代 文化의 精髓이며 人間 眞理의 標本이다. 哲學的 認識論

도 과학적 사실에 違反되는 생각은 眞理가 될 수 없고, 學問的으로 成立될 수도 없다. 그러면 과학의 眞理性이 어디 있는지 더듬어 보자. 人間은 科學하기 前에 經驗的 世界에 살고 있다. 人間이 그 직접 經驗하고 觀察할 수 있는 사실이라 하는 좁은 範圍에 갖혀 있는 限에는 眞理에는 도달할 수 없다. 科學은 日常 經驗을 擴張하고 풍부히 하여 孤立한 사실을 記述하지 않고 包括的 展望을 주려고 努力한다. 事實 뒤에 숨은 原因과 그 事實을 지배하는 法則을 探求하는 것이다. 科學은 하나의 命題가 그렇게 되지 않을 수 없는 判斷의 필연성을 우리에게 의식하게 하고, 아울러 그 命題가 판단하는 主體나 다른 사람에게도 그 같이 認識되리라는 普遍性을 지니게 한다. 이 필연성과 普遍妥當性은 바로 진리의 不可缺 條件이 되는 것이다.

이 글은 '학문의 진리'라는 주제의 글이다. 이 글의 전개에 있어서 첫 단락에서 '오늘날의 사람도'에서 앞의 起에 해당된 내용이 생략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이 첫단락은 '도'에 의해서 起段이 되기 어렵고 오히려 그 앞에 있을 문제제기가 되는 起를 받아 설명하는 '承'段이 됨을 알 수 있다.

'그러면' 이후의 문단에서는 학문의 과학적 진리성을 논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필자의 주장이 전환되어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소재인 학문의 내용이 나타나 있다. 結에서는 과학적 진리의 조건을 말하고 있다. 그리하여 이 글의 주제인 학문이 추구하는 진리의 조건을 판단의 필연성과 보편타당성이라는 내용을 일관성있게 전개하고 있다.

2.2.3 五段構成

우리 글에서 거의 쓰이지 않은 형태다. 필자가 思考를 발전시켜 나가다가 所期의 行動에까지 나가게 하는 順序에 의한 구상법으로 motivated sequence라 부르기도 한다.

그 구성 형태는

- (1) 주의를 이끄는 단계(주의 환기)

- (2) 문제를 提示하는 단계(과제 제시)
- (3) 해결해야 할 문제점 제시
- (4) 해결법의 구체화
- (5) 요약 및 행동화 추구

이 구성법은 Alan M. Monroe의 motivated sequence다. (1)-(2)는 序論, (3)-(4)는 本論, (5)는 結論으로 포괄할 수도 있다.

- (1) 대학의 캠퍼스는 지금 靑雲의 뜻을 품고 모여든 수험생들로 들끓고 있다. 시험장을 한바퀴 돌아보았더니, 교탁 앞에 '간추린 ○○', '○○ 精解', '完璧 ○○' 등 수험참고서가 마냥 흩어져 있다.
- (2) 오늘의 대학생은 책을 읽지 않는다는 世評은 일찍부터 들어 온 터이다. 그들은 다방이나 당구장에 가는 시간과 돈의 여유는 있어도 교과서 사는 데조차 책 사기에는 인색하다는 말을 흔히 듣게 된다. 공부를 안 하는 대학생이 오히려 正常視되어 새삼 '공부하는 대학생'이라는 말이 생겨나듯이, '책 읽는 대학생'이란 말이 나돌고 있는 것도 알고 있다. 오늘의 대학생이 책을 읽는 데 게으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나는 시험장의 광경에서 오늘날 대학생이 독서를 게을리하는 데는 학생들만을 탓할 수 없는 더 근원적인 교육의 제도나 환경의 죄과와 책임이 없지 않음을 느끼게 되었다.
- (3) 고등학교는 보통교육의 완성기로 되어 있다. 나는 국민의 교양기반은 중, 고등 학력기에 構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네 경험으로는 고전, 명작류의 독서다운 독서를 해 본 것은 중학교시절이 아니었던가 싶다. 몇 해전 外遊 길에 오스트리아에 들렀을 때 들은 바로는, 그 곳 학생들은 고등학교에서 지정된 고전 중에서 필수과정으로 30권을 讀破해야 한다는 것이다.
- (4) 그런데 오늘의 우리 중, 고등학교 학생들은 밤낮으로 입시준비에 쫓기다 보니 그들의 독서라면 교과서와 수험 참고서 정도가 고작으로, 그 밖의 과외독서는 아예 귀중한 시간의 낭비로밖에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 (5) 또 하나의 곤란은 讀解力에 있다. 독서도 하나의 훈련이므로, 고전 교양서는 물론 대학생이 그들의 전공서적을 읽으려면 언제나 대중소설이나 주간잡지처럼 떡 먹듯 쉬운 일이 아니고, 인내와 사고

- 력을 요하는 것이다. 그런데, 오늘의 대학생들은 ○X식으로만 책을 보아 왔기 때문에, 생각하면서 하는 독서라면 귀찮게 여긴다.
- (6) 이 같은 모순점을 解消하기 위한 대책으로 어려서부터 독서를 습성화하고, 언어교육 특히 한자교육을 철저히 시키며, 좋은 책이 쏟아져 나와 내용과 겉보기가 함께 실한 향서를 읽는 풍조가 사회의 한 미덕이 되도록 하며, 정비된 도서관 등 독서환경의 개선도 하여야 할 것이다.
- (7) 책을 안 읽는 데다 못 읽는 현실을 개선하고, 독서하는 습관이 모든 학생, 모든 국민의 생활 속에 익숙해지기를 바란다.

(金鑿近: 안 읽느냐, 못 읽느냐)

이 글은 '(1) 책에 관하여 관심을 불러일으킴/(2) 글의 중심과제 --독서하지 않는 대학생의 독서문제/(3) 중, 고교는 중요한 독서기반 구축기, (4) 현 세대--독서를 시간낭비로 앎, (5) 독해력이 없는 학생들(여기서 해결법은 제시된 것, 더 말하지 않아도 알게 된다.)/(6) 해결법의 구체적 예시/(7) 결의, 행동화의 촉구'로 분석되는 글이다.

- (1) 잘 사는 나라에서는 국민소득이 많아 학비도 무료요, 의료시설 이용도 무료라 한다. 무료가 아니라 국가의 재원이 풍부하여, 네 것 내 것의 구분 탓으로 다룰 까닭이 없기 때문일 것이다.
- (2) 우리는 1960년대 말기에 70년대가 되면 누구나 잘 살게 되는 이른바 '풍요의 사회'가 온다고 호언장담을 하였다. 소비가 미덕이 되고, 이른바 '마이 카 시대'가 目前에 왔다고 기염을 토하였었다.
- (3) 그런데, 오늘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않다. 貧益貧富益富의 악순환이 再現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악순환은 근본적으로 어디에 根因이 있을까? 이 같은 經濟的 不均衡을 해결하고 國民福祉의 실현을 가능하게 할 方策은 무엇일까?
- (4) 이에 對處할 方策을 講究하기 위하여는 먼저 1960년대 우리나라 경제정책의 모순과 결함이 무엇이었던가를 밝히는 것이 急先務다.

첫째, 경제정책 수립이 '목표액 달성'이라는 숫자 맞추기에 汲汲하

여, 실정에 맞지 않는 理想論이나 無謀한 수출계획 정책에 의하여 結實을 보지 못한 것.

둘째, 外國借款에 있어서 일부 有力者의 私益에 寄與하거나 政治가 經濟에 지나치게 의존하여 借款額의 相當한 정도가 일부 옳지 못한 기업인을 위한 特惠措處를 강요받게 된 것.

셋째, 企業精神의 不在로 인하여 企業은 망하여도 기업주는 致富하는 식의 놀라운 부조리를 드러낸 것.

넷째, 技術向上을 위한 구체적인 교육제도의 실현이 未備하였던 것.

이러한 結果, 企業은 非生産的인 경향으로 失墜되고 富는 偏在하게 되어 大衆經濟가 위험한 지경에 놓이게 된 것이다.

- (5) 國民經濟의 中興과 복지실현을 위한 方策은 以上과 같은 모순점을 해결하는 데 있으니까, 먼저 不實企業을 정리하고 技術者 養成을 위한 기술교육 기관의 完備, 富의 均衡을 위한 政策的 規制手段의 실천, 中小企業의 名實相符한 육성 등 획기적이고 공명정대한 정책수행을 단행하여야 할 것이다.
- (6) 아데나우어 정책이 유희노동력 흡수를 위해 기술교육 기관을 완비하고, 賃金의 保障, 富의 均配 등 多角的인 노력을 기울인 것이 '라인강의 奇蹟' 성취와 깊이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는 좋은 교훈이 된다.
- (7) 잘 사는 나라를 先進國이라 한다면 우리 나라는 新進國이다. 新進國의 복지사회의 꿈은, 위에서 밝힌 바와 같이 현실을 고려한 목표 설정, 차관업체의 완전 생산화와 명실상부한 수출증대, 기업정신의 정립이라는 命題를 내걸고, 이에 뒷받침할 여러 가지 대응책을 세워 영업세 300만원 이상을 부과하는 5, 000명 정도의 국민이 아니라 3, 000만 국민 모두가 다 잘사는 나라를 이룩해야 할 것이다.
- (8) 이러한 정신과 이 정신의 현실화는 통일조국 실현의 가능성을 반석 위에 올리고, 필경은 5, 000만 겨레가 함께 잘 사는 신홍선진국의 면모를 구축할 것이다.

이 文章은 '주의환기:(1)~(2)/과제제시:(3)/과제해명:(4)/해결법의 구체화:(5)~(6)/요약, 행동화촉구, 발전:(7), (8)'의 구성으로 된 글이다. (1)~(2)에서는 국민경제 중흥이나 복지실현의 문제와 관계는 있으면서 직접 관련되지 않은 화제로써 注意喚起

(motivation)를 시도했고, (3)은 직접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경제적 균형과 국민복지 실현이 과제임을 명시했다. 이렇게 명시하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간접적으로 암시하여도 무방하다. (4)에서는 해결의 방책을 네 가지로 열거하여 보았다. (5)는 해결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고, (6)에서는 그 例證을 하였다. (7)에서는 본론의 내용을 요약하고, 실현(행동화)을 촉구하고, (8)에서는 '통일조국의 경우'라는 새로운 면에까지 발전시켜 마무리한 것이다.

2.2.4 변증법적 구성

변증법적인 文章이란 서로 모순되는 둘 이상의 논점을 止揚, 統一시켜 전개하고 끝맺는 글을 뜻한다.

일반적으로 사랑은 감정이며 순수한 지식과 구별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사실상의 정신현상에는 純知識이라는 것도 없고, 純感情이라는 것도 없다. 그러므로 그와 같은 구별은 심리학이 학문상의 편의를 위하여 만들어낸 抽象的 概念에 지나지 않는다. 學理의 연구가 일종의 감정에 의하여 유지되어야 하듯이 他人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일종의 直覺에 기초를 두어야 한다.

내 생각으로는, 일반적 지식이란 非人格的으로 본 때의 지식이다. 兩者의 차이는 정신작용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대상의 종류에 있다고 해도 좋다.

그러나, 옛날부터 수많은 학자, 철인이 말한 바와 같이 宇宙實在의 본체를 人格的인 것이라고 말한다면, 사랑은 실재의 本體를 捕捉하는 힘이다. 사물의 가장 깊은 지식인 것이다. 分析推論의 지식은 사물의 表面的 知識이며, 그 자체를 포착할 수 없다. 우리는 다만 사랑에 의해서만 이것을 달성할 수 있다.

이 글은?

- (1) 정신현상에 있어 지식과 사랑의 구별은 없다.
- (2) 대상의 차이에서 사랑과 지식은 구별된다.
- (3) 사랑과 지식은 별개의 것이 아니라, 사랑은 지식의 極點이다.

와 같은 論法으로 止揚, 統一된 글이다.

지금까지 검토해본 바와 같이 現象學과 分析哲學은 서로 완전히 대립되는 哲學的 方法論이며 哲學的 삶에 대한 해석이다. 이 두 철학간의 相異點은 각기 그들의 이론을 구성하는 중요한 概念들이 서로 相反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는 사실에 있다. 그것은 위에서 길게 검토해 본 바와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상학과 분석철학은 마침내 다 같이 삶이라는 概念으로 돌아가서 삶이라는 概念에서 일치하게 된다. 현상학은 제아무리 투명하고 客觀的인 觀念的 삶도 결국은 具體的인 '삶의 세계'에 그 뿌리를 박고 있다고 믿게 되고, 분석철학은 제아무리 투명한 言語의 의미도 그 언어를 사용하는 한 공동체, 한 인간의 삶의 양식을 떠나서는 이해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게 된다.

(朴異汶: 삶의 세계와 삶의 良識)

이 글은 現象學과 分析哲學의 方法論的 對立을 止揚, 統一시킨 文章이다. 紙面關係로 그 방법론적 대립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인용, 소개하지 못하는 것이 이 글에서 未洽한 점이다.

多讀이나 精讀이냐가 또한 물음의 對象이 된다. 男兒須讀五車書는 전자의 자장이나 博而不精이 그 通弊요, 眼光이 紙背를 撇함이 후자의 持論이로되, 나무를 보고 숲을 보지 못함이 또한 弱點이다. 아무튼, 독서의 목적이 모래를 헤쳐 금을 캐어 냄에 있다면, 畢竟 多와 精을 兼하지 않을 수 없으니, 이것 역시 平凡하나마 博而精이라는 말을 標語로 삼아야 하겠다. 博과 精은 차라리 辨證法的으로 統一되어야 할 것-아니, 우리는 兩者의 概念을 窮極的으로 超克하여야 할 것이다. 宋人の 다음 詩句는 勉學에 대해서도 그대로 알맞은 정제이다.

(양주동: 연학의 서)

이 글은 일종의 변증법적 구성이라 하겠다. 다독의 장단점을 앞에서 말하고(正), 뒤에선 정독의 장단점을 논하고(反) 독서의 방법은 <博而精>이어야 한다는 주장(合)의 원리에 의해 전개된 글이라 하겠다.

2.3 包括式 構成

이 포괄식 구성은 文章 全體보다도 어느 부분에 적용하는 경우가 많다. 主題文에 해당된 부분이 文頭, 文尾, 文頭와 文尾에 오느냐에 따라 頭括式, 尾括式, 雙括式으로 구분된다.

- (1) 사회는 그 조직 체계를 유지(維持)하기 위하여 규범(規範)을 가진다. 어느 사회에서 살든지 인간은 그 사회의 규범을 따라야 한다. 이러한 규범, 또는 사회가 가지는 생활양식(生活樣式)을 문화라고 한다. 개개의 사회가 가지는 특징적(特徵的) 문화형(文化型)은 오랜 세월(歲月)을 두고 그 사회가 시행착오(施行錯誤)를 거쳐서 이룩한 경험(經驗)의 결과이다.
- (2) 문화형의 존재는 사회의 존재와 활동에 필요한 것처럼 사회의 존속에도 필요한 것이다. 사회는 그 신참자(新參者)들에게 그들이 가질 위치(位置)에 따른 문화형을 교육하고 지위(地位)를 줌으로써, 사회 구성원이 세대 교체(世代 交替)를 거듭해도 그 구성원의 생사(生死)와 관계 없이 그 사회가 존속하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구성원 각자는 그 사회의 문화형을 배움으로써--이런 학습(學習)을 개인(個人)의 사회화(社會化)하 한다. --그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공유(共有)하는 행동 양식(行動樣式)을 습득하고, 이에 따라 행동함으로써 사회의 일원(一員)으로 존재하고 생활하게 되는 것이다.

(이광규: 인간과 문화)

단락 (2)는 문화형의 존존재와 사회와의 관계를 역사적·사회적 관점에서 논한 글이다. 중심문은 첫문장으로 둘째문장에서 끝까지 는 첫문장의 요약적 제시를 구체화하고 있다.

參考文獻

- 李翊燮, 任洪彬 : 國語文法論, 學研社, 1983
 金奉郡 : 文章技術論, 三英社, 1980

文德守 : 新文章講話, 成文閣, 1968

李應百 外 : 國語科教育, 韓國能力開發社, 1975

Brooks, Cleanth and Warren, Robert Penn. Modern Rhetoric, Harcourt, Brace and Co, Inc, 1949